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재환** · 김진석***

<요 약>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과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 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외부감사법이 2013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도입 이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행위 근절로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감사법 개정의 실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된 것만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있음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이후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의 근절 여부뿐만 아니라 원칙중심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전문성의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 정착기간인 2016~2017년과 도입 이전 및 도입 초기기간인 2012년~2015년을 비교분석을 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16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6년 이후 더미변수는 잠정이익 수정여부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되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 수록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더 감소시키

* 본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이며, 공동저자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1983@cau.ac.kr, 주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석사과정, kjs910627@naver.com, 공동저자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정된 외부감사법 제도가 실효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증거로 법규의 제도적 정비 및 회계실무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잠정이익

I. 서 론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과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 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원칙중심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연구한 이은철과 박석진(2016)은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노준화와 신유진(2018)은 잠정이익의 수정정도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투입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와 잠정이익의 하향 수정정도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으로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되고는 있으나 동 제도의 도입이 원칙중심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잠정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 여부와 수정금액을 통해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은 보고이익의 질 및 이익예측치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공시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진과 문상혁 2005 ; Karamanou and Vafeas 2005 ; 손성규 외 2011). 이에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전문성의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자체적인 결산능력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와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관계가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도입의 전·후 기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이익을 공시한 7,183개 기업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초기(2012~2015년)에는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입 정착기(2016~2017년)부터는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비율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로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 후 감소함을 나타내어 동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 후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변수 측정방법, 표본 선정과정의 연구설계를 제시하고 제Ⅳ장에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하여 논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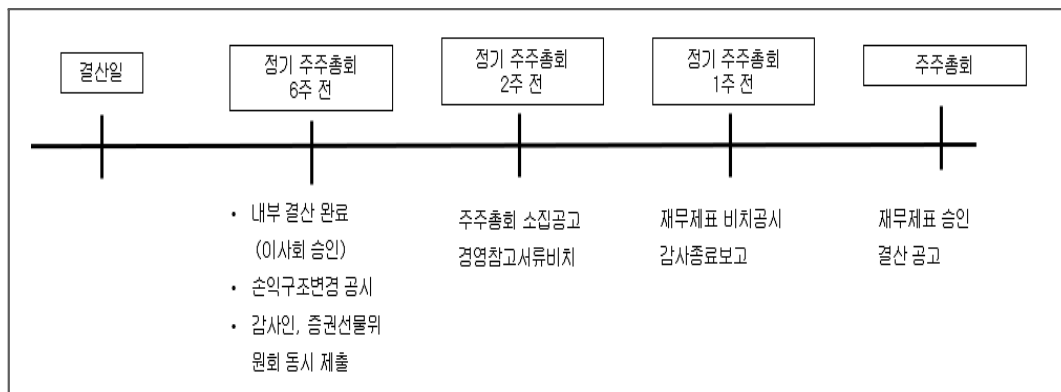
기존의 외부감사법¹⁾은 재무제표 제출이라는 법령만 명시되어있어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외부감사법²⁾을 살펴보면,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을 기업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감사 위험 방지의무³⁾도 구체화하였다. 외부감사인인 기업에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재무제표 작성

-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845호)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148호)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 ⑤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6.30., 2014.11.28.>

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자문행위, 회계분개를 대신 해주는 행위,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또는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본 연구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잠정이익 수정 정도를 사용하였다. 잠정이익은 손익구조변경(수시공시)공시로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매출액, 당기순이익 또는 영업손익이 30/100(대규모 법인의 경우 15/100)이상 증감한 경우나 결정이 있을 때 이를 다음날까지 증감사실을 공시하는 동시에 외부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된 이익을 나타낸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및 손익구조변경 공시의 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및 손익구조변경 공시의 일정



잠정이익의 수정은 손익구조변경공시를 통하여 공시된 이익정보와 향 후 감사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재무제표의 이익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회사가 작성하여 제시한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차이가 있는지가 수정여부이며 차이금액은 수정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수정여부 및 수정금액의 차이는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손성규와 이은철 2008). 이은철과 박석진(2016)은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도 도입 첫해만을 대상으로 잠정이익 수정 여부와 수정 금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입 이전 기간보다 제도의 도입 첫해에 잠정이익 수정 여부와 수정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이익의 수정 여부와 수정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은 외부감사인인 기업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가 근절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되는 것으로 외부감사법의 실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전에는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감사 전 이익인 잠정이익이 감사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낮았으나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이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견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로 재무제표 지연제출이 해소되어 적정한 감사시간이 투입된 점도 감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을 커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일과 전규안(2017) 연구는 증권선물위원회 사전제출 의무화제도 도입 초기에는 잠재적인 혼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2년이 경과한 2015년과 2013년, 2014년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서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노준화와 신유진(2018)은 잠정이익의 수정정도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외부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투입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와 잠정이익의 하향 수정정도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며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가 근절되어 잠정이익의 수정여부와 수정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회계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증가된 잠정이익의 수정여부 및 수정금액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강화는 원칙중심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의 근절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던 관행이 없어진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증가하나, 제도 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어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기로 한다.

[연구가설 1]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어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재무제표가 감사인에게 제출되는 시점의 결산정보는 외부감사 이전 정보로 경영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회계정보의 과대공시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전영순과 손준희 2005 ; 송인만과 박연희 2006 ; 손성규와 이은철 2008 ; 김우영 2009 ; 양준선과 김기범 2012). 전영순과 손준희(2005)는 잠정이익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대공시와 기업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는 작을수록, 당기 경영성과가 열악할수록,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의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잠정이익을 과대 공시하려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손성규 외(2011)는 이사회 독립성에 따라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행위를 감소시켜 잠정이익과 실제이익 간의 차이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과대

공시 성향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이익과 잠정이익 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사외이사제도 운용과 감사위원회 설치와 같은 우수한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수적 회계처리 증대로 이어져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향상되며(Dechow et al. 1996 ; Klein 2002 ; 이상철과 이경태 2003 ; 김병호 2006 ; 김동률 2009 ; 이문영 외 2012), 과대공시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Fond and Jambalvo 1991 ; 문상혁 외 2006). 또한, Xie et al.(2003)에 의하면 이사회 중 사외이사 출신 또는 경영자 출신인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은 기업과 이사회의 모임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보고이익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진과 문상혁(2005)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보고이익의 질과 경영성고가 향상되어 기업가치가 높아짐을 나타내었다. Karamanou and Vafeas(2005)은 효율적인 감사위원회가 정착된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많은 이익을 예측하며, 이익예측치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행위를 감소시키고 경영자의 과대공시 성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하여 잠정이익과 실제이익 간의 차이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기로 한다.

[연구가설 2]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쳐 잠정 이익 수정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개정 외부감사법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1)은 아래와 같다. 제도 도입 이전 및 도입 초기의 잠정이익 수정정도 변화가 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2016년~2017년(이하 “도입정착기”라 한다)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ADJNI_{i,t} = \beta_0 + \beta_1 YR1617_{i,t} + \beta_2 In\ Delay_{i,t} + \beta_3 BIG4_{i,t} + \beta_4 OWN_{i,t} + \beta_5 SIZE_{i,t}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CON_{i,t} + \beta_9 MKT_{i,t} + \sum IND_{i,t} \quad (1)$$

ADJNI : 잠정이익 수정정도(ADJ, ABSGAP)

ADJ : 잠정이익 수정여부, 잠정이익이 감사 후 수정되었으면 1, 수정되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ABSGAP : 잠정이익 수정금액, 잠정이익과 실제이익 차이를 실제이익으로 나누어 절대값을 취한 값

YR1617 : 2016~2017년(도입 정착기)기간이면 1, 이전 기간이면 0인 더미변수
 InDelay : 잠정공시일, 잠정공시 일로부터 기업 결산일까지의 일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BIG4 : 외부회계감사법인, BIG4 감사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OWN :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지분을
 SIZE : 기업규모, 기업의 총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ROA : 총자산수익률,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LEV : 부채비율, 기업의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CON : 연결 잠정이익 공시 여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였으면 1, 미공시하였으면 0인 더미변수
 MKT : 시장여부, 유가증권시장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IND : 산업 더미변수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2)는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ADJNI_{it} = & \beta_0 + \beta_1 CG_{i,t} + \beta_2 In\ Delay_{i,t} + \beta_3 BIG4_{i,t} + \beta_4 OWN_{i,t} + \beta_5 SIZE_{i,t} \\
 & + \beta_6 ROA_{i,t} + \beta_7 LEV_{i,t} + \beta_8 CON_{i,t} + \beta_9 MKT_{i,t} \\
 & + \sum IND_{i,t} + \sum YEAR_{i,t}
 \end{aligned} \quad (2)$$

CG : 기업지배구조(ACBE, BOUT, BSPE)

ACBE :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이면 1, 미설치된 기업이면 0인 더미변수

BOUT :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 수를 총 등기이사 수로 나눈 값

BSPE : 사외이사 전문성, 회계·재무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수를 총 사외이사 수로 나눈 값

YEAR : 연도 더미변수

그 외 변수설명은 모형1 참조

모형(1), (2)의 종속변수는 잠정이익 수정정도(ADJNI)로 잠정이익 수정여부(ADJ)와 잠정이익 수정금액(ABSGAP)을 사용하였다. ADJ변수는 감사 전 잠정이익이 외부감사 후 수정되었으면 1, 수정되지 않았으면 0인 더미변수를 나타내며, ABSGAP변수는 잠정이익에서 실제이익(감사 후)을 차감하고 실제이익으로 나누어 절댓값을 취한 변수이다.

독립변수로는 연도(YR1617), 감사위원회 설치여부(ACBE), 사외이사 비율(BOUT), 사외이사 전문성(BSPE)을 사용하였으며,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YR1617변수는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의 정착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2017년도에 해당하면 1, 도입 이전 및 초기기간이면 0인 더미 변수이다. ACBE4)변수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을 감시·감독하여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이상철과 이경태 2003 ; 이문영 외 2012)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이면 1, 미설치된 기업이면 0인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BOUT 및 BSPE 변수는 이사회 내부이사비율보다

4)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법인은 이사회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기업 총자산이 2조원 이상 기업인 경우 3명 이상, 이사회 총수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과, 회계·재무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여 회계이익의 질과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bach 1988 ; Dechow et al. 1996 ; Klein 2002 ; 이상철과 이경태 2003 ; 박종일 외 2003 ; Xie et al. 2003 ; 이효익과 문상혁 2004 ; 이화진과 문상혁 2005). BOUT변수는 12월 31일 시점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를 전체 등기이사 수로 나누었다. BSPE변수는 사외이사 중⁵⁾ 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전 공교수를 회계·재무전문가로 한정하였으며 총사외이사 수로 나누었다.

통제변수로는 잠정공시일(InDelay), 외부회계감사법인(BIG4), 최대주주지분율(OWN), 기업규모(SIZE), 총자산수익률(ROA), 부채비율(LEV), 연결 잠정이익 공시 여부(CON), 시장여부(MKT)이다. InDelay변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잠정공시일까지 기간이 짧아질수록 잠정이익이 부정확할 수 있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전영순과 손준희 2005 ; 이은철과 박석진 2016). BIG4변수는 기업 자체적으로 결산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이은철과 박석진 2016)예상되어 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박종일(2003) 연구에 따르면, OWN변수는 기업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이익조정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은철과 박석진(2016)은 기업규모에 따라 회계시스템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함에 따라, 기초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SIZE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ROA변수는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보아 당기순이익에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통제하였다. LEV변수는 기업의 자본계약이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총부채에 총자산을 나누어 모형에 포함 시켰다(DeFond and Jambalvo 1994). CON변수는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회계처리 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이은철과 박석진(2016)은 잠정이익 수정 금액의 차이가 시장에 따라 차별적인 차이를 보고한다는 연구에 따라, 유가증권기업과 코스닥 기업을 나누어 통제하였다.

2. 표본 선정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손익구조변경

5)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02.29.) 제37조의7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② 법 제54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5.1.27., 2008.2.29.>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감독원·거래소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시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1년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기라 기준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기간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의 결산월과 업종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관리대상인 표본은 제외하였다. 손익구조변경공시 정보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정된 잠정이익을 보고한 기업을 선정하여 잠정이익을 수작업으로 수집하였고, 정정되지 않은 잠정이익은 Fn-Guide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변수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및 사외이사 전문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된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⁶⁾. 최대주주지분율(특수 관계인 포함)은 한국상장협 DB인 TS-2000을 사용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연구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Fn-Guide를 사용하였다. 또한, 극단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 변수의 상위·하위 1% 및 99% 값을 초과하는 극단치 표본은 제거(truncation)하였으며, 산업이 10개 미만이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은 표본 추출과정을 나타내며, 최종 표본 7,183개로 구성된다.

<표 1> 표본 선정 과정

구 분	기 업
2012-2017년 추출 가능한 표본	14,496
2012-2017년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되지 아니한 표본 제외	(3,827)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12월 결산법인이 아니한 표본 제외	(649)
관리종목 표본 제외	(260)
미공시한 표본 제외	(1,362)
기업의 지배구조자료 및 재무자료가 없는 표본 제외	(26)
극단치에 속하는 표본 제외	(999)
산업별 표본이 10개미만인 표본 제외	(190)
총 표본	7,183

<표 2>는 표본 선정 과정에 의해 선정된 최종 표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인 대분류-연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제조업이 4,887개 기업으로 국내 산업이 제조업 중심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81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77개)이 높은 표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교육 서비스업(10개)이 가장 낮은 표본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합계로 살펴보면 2012년이 1,061개로 가장 낮았으며, 2017년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인다.

- 6) 사업보고서 상의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주요경력을 통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과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수집함.

〈표 2〉 산업-연도별 표본 수

대분류	C	F	G	H	J	M	N	P	합
2012년	733	41	75	19	111	82	0	0	1,061
2013년	782	35	89	16	120	89	11	0	1,142
2014년	765	41	94	20	129	96	11	0	1,156
2015년	815	36	87	17	127	97	11	0	1,190
2016년	856	37	87	20	143	109	11	10	1,273
2017년	936	41	100	19	151	104	10	0	1,361
합	4,887	231	532	111	781	577	54	10	7,183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제조업(C)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 서비스업(P)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관한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각 변수를 살펴보면, ADJ변수의 평균은 0.45로 최초 잠정이익이 외부감사 이후 약 45% 정도가 수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ABSGAP변수의 평균은 0.11로 잠정공시 금액 중 감사 후 정정되는 금액의 평균이 약 11% 정도의 금액이 수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YR1617변수의 평균은 0.37이다. ACBE변수의 평균은 0.20으로 감사위원회가 약 20% 기업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BOUT변수는 0.32의 평균을 나타내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이 약 32%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BSPE변수는 평균 약 14% 정도가 사외이사 중 회계·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최댓값이 1인 것으로 보아 사외이사가 모두 회계·재무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이 있지만, 최솟값이 0인 것으로 보아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ELAY변수의 평균 46.46으로 기업 결산이 끝나고 잠정공시를 약 46일 이후 공시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BIG4변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기업이 대형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 변수들은 OWN 약 40%, SIZE 26.05, ROA 약 2%, LEV 약 43%, CON 약 66%, MKT 약 38%의 평균을 나타낸다.

〈표 3〉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 수		평균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표준편차
ADJNI	ADJ	0.45	0.00	0.00	1.00	0.50
	ABSGAP	0.11	0.00	0.00	2.18	0.25
YR1617		0.37	0.00	0.00	1.00	0.48
CG	ACBE	0.20	0.00	0.00	1.00	0.40
	BOUT	0.32	0.00	0.29	0.67	0.14
	BSPE	0.14	0.00	0.00	1.00	0.29
Delay		46.46	19.00	45.00	73.00	12.61
InDelay		3.80	2.94	3.81	4.29	0.28
BIG4		0.52	0.00	1.00	1.00	0.50
OWN		0.40	0.07	0.39	0.79	0.16
SIZE		26.05	23.61	25.79	31.08	1.35
ROA		0.02	-0.38	0.02	0.30	0.09
LEV		0.43	0.06	0.44	0.88	0.20
CON		0.66	0.00	1.00	1.00	0.48
MKT		0.38	0.00	0.00	1.00	0.49

1) 변수 정의는 모형1과 모형2를 참조.

2) Delay는 잠정공시 일수를 뜻하며, InDelay는 잠정공시 일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나타낸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이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잠정이익 수정 여부(ADJ) 및 잠정이익 수정 금액(ABSGAP)을 살펴보면, YR1617 변수는 ADJ 및 ABSGAP변수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측정치인 감사위원 설치여부(ACBE), 사외이사비율(BOUT), 사외이사 전문성(BSPE)변수는 ADJ 및 ABSGAP변수와 모두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제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정도와 기업지배구조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DJ 및 ABSGAP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ADJ변수와 OWN, CON, SIZE, ROA, MKT변수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로 나타났고, LEV변수에서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잠정이익 수정 금액인 ABSGAP변수와 OWN, CON, ROA변수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며, LEV변수에서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InDelay 변수는 ADJ 및 ABSGAP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만, 혼재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InDelay, CON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 4〉 Pearson 상관관계분석 (총 표본 수 : 7,183)

	ADJ	ABSGAP	YR1617	ACBE	BOUT	BSPE	lnDelay	BIG4	OWN	SIZE	ROA	LEV	CON	MKT
ADJ	1													
ABSGAP	0.47***	1												
YR1617	-0.06***	-0.08***	1											
ACBE	-0.08***	-0.05***	0.06***	1										
BOUT	-0.07***	-0.03***	0.04***	0.55***	1									
BSPE	-0.05***	-0.03***	0.00	0.15***	0.13***	1								
lnDelay	-0.04***	0.04***	-0.09***	-0.22***	-0.14***	-0.06***	1							
BIG4	0.01	0.01	-0.07***	0.25***	0.19***	0.02*	-0.12***	1						
OWN	-0.11***	-0.08***	-0.02	0.11***	0.08***	0.09***	-0.07***	0.16***	1					
SIZE	-0.07***	-0.02	0.03***	0.49***	0.48***	0.10***	-0.21***	0.39***	0.18***	1				
ROA	-0.10***	-0.11***	-0.02	0.08***	0.04***	0.08***	-0.17***	0.09***	0.21***	0.16***	1			
LEV	0.10***	0.13***	-0.06***	0.10***	0.17***	-0.02**	0.12***	0.07***	-0.07***	0.31***	-0.27***	1		
CON	-0.13***	-0.16***	0.11***	0.10***	0.13***	0.02**	-0.00	0.06***	-0.04***	0.23***	-0.03***	0.11***	1	
MKT	-0.08***	-0.01	-0.02	0.33***	0.31***	0.09***	-0.19***	0.25***	0.19***	0.56***	0.05***	0.16***	0.13***	1

1) 변수 정의는 모형1과 모형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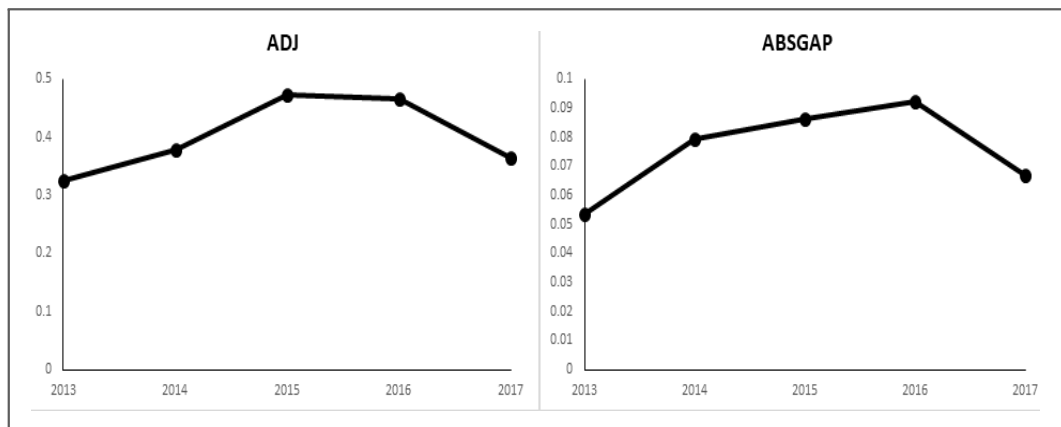
2)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 실증분석 결과

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연도별 분석

<그림 2>는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여부(ADJ)와 잠정이익 수정금액(ABSGAP)의 평균치를 이용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은철과 박석진(2016)연구와 유사하게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의 도입 이전 및 초기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도입 정착기인 2016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이전 및 도입 초기에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만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입 정착기에 접어들면서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의 근절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연도별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변화



<표 5>는 연구모형1과 <그림 2>를 사용하여 제도의 도입 정착기간인 2016~2017년과 도입 이전 및 도입 초기기간인 2012년~2015년간의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비교분석을 한 결과이다. F-값은 로지스틱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 설정은 적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⁷⁾가 2.04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인 잠정이익 수정 여부(ADJ)는 3,251개 기업이 외부감사인에 의해 잠정이익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32개의 기업은 잠정이익이 수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관심변수인 YR1617변수는 ADJ 및 ABSGAP변수 모두에서 1% 유의수준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7) 변수 간에 높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일반적으로 기준값 1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2015년보다 2016년~2017년에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더 감소시키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그림 2>의 그래프와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5〉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의 정착기간과 잠정이익 수정정도

VAR	로지스틱 ADJ(1=3,251, 0=3,932)		다중회귀분석 ABSGAP	
	계수	Wald χ^2	계수	t통계량
절편	4.99	20.29***	0.23	2.02**
YR1617	-0.20	14.28***	-0.03	-4.74***
InDelay	-0.70	57.47***	0.01	0.87
BIG4	0.22	15.48***	0.01	2.02**
OWN	-1.13	46.32***	-0.11	-5.84***
SIZE	-0.12	19.82***	-0.00	-0.34
ROA	-1.43	20.71***	-0.19	-5.41***
LEV	1.45	97.17***	0.15	8.82***
CON	-0.55	104.78***	-0.09	-14.76***
MKT	-0.29	20.91***	-0.00	-0.15
IND	Included		Included	
F-값	424.31***		30.57***	
R ²	0.0838		0.0618	
표본 수	7,183			

- 1) 변수 정의는 모형 1과 모형 2를 참조.
- 2) ***(1%), **(5%), 및 *(10%)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로지스틱분석의 수치는 Wald χ^2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중회귀분석의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냈다.
- 3) 로지스틱분석에서 R²값은 Max rescaled을 의미하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Adj R²값을 의미한다.

나.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연구모형2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ADJN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표이다. 모형1~3은 각각의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모형4는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모두 포함한 가설2의 분석결과이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형 중 가장 높은 분산팽창지수가 2.44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1의 ACBE는 ADJ 및 ABSGAP변수와 1% 유의수준에서 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와 모형3의 BOUT 및 BSPE변수는 ADJ변수와 1%, 5%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ABSGAP변수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6〉 기업지배구조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관한 실증분석

VAR	로지스틱 ADJ (1=3,251, 0=3,932)				다중회귀분석ABSGAP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절편	4.35 (14.30)***	4.69 (16.86)***	5.21 (21.23)***	4.23 (13.51)***	0.21 (1.83)*	0.25 (2.15)**	0.27 (2.38)**	0.21 (1.81)*
ACBE	-0.33 (19.39)***			-0.26 (10.12)***	-0.02 (-2.81)***			-0.02 (-2.39)**
BOUT		-0.70 (11.46)***		-0.38 (2.75)*		-0.03 (-1.37)		-0.01 (-0.20)
BSPE			-0.18 (4.21)**	-0.13 (2.12)			-0.01 (-1.12)	-0.01 (-0.79)
InDelay	-0.85 (75.18)***	-0.82 (70.01)***	-0.81 (68.30)***	-0.85 (75.08)***	-0.01 (-0.78)	-0.01 (-0.54)	-0.01 (-0.50)	-0.01 (-0.79)
BIG4	0.23 (15.93)***	0.21 (13.79)***	0.21 (13.31)***	0.22 (15.02)***	0.01 (1.83)*	0.01 (1.65)*	0.01 (1.62)	0.01 (1.79)*
OWN	-1.06 (38.60)***	-1.07 (38.97)***	-1.05 (37.62)***	-1.05 (37.55)***	-0.10 (-5.28)***	-0.10 (-5.31)***	-0.10 (-5.24)***	-0.10 (-5.23)***
SIZE	-0.11 (15.62)***	-0.12 (18.26)***	-0.15 (31.76)***	-0.10 (12.12)***	-0.00 (-0.75)	-0.00 (-1.22)	-0.01 (-1.73)*	-0.00 (-0.68)
ROA	-1.65 (26.06)***	-1.66 (26.38)***	-1.59 (24.32)***	-1.65 (25.93)***	-0.21 (-5.99)***	-0.21 (-5.98)***	-0.20 (-5.89)***	-0.21 (-5.95)***
LEV	1.42 (87.29)***	1.44 (90.23)***	1.42 (88.14)***	1.42 (87.39)***	0.13 (8.19)***	0.13 (8.29)***	0.13 (8.24)***	0.13 (8.17)***
CON	-0.03 (0.17)	-0.02 (0.09)	-0.02 (0.10)	-0.03 (0.15)	-0.02 (-3.12)***	-0.02 (-3.05)***	-0.02 (-3.06)***	-0.02 (-3.12)***
MKT	-0.32 (25.20)***	-0.33 (26.52)***	-0.34 (27.42)***	-0.32 (24.25)***	-0.01 (-0.71)	-0.01 (-0.84)	-0.01 (-0.87)	-0.01 (-0.68)
IN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F-값	749.75***	744.70***	739.58***	753.74***	45.26***	44.93***	44.91***	41.34***
R ²	0.1571	0.1557	0.1545	0.1579	0.1146	0.1138	0.1138	0.1144
표본수	7,183							

1) 변수 정의는 모형 1과 모형 2를 참조.

2) ***(1%), **(5%), 및 *(10%)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로지스틱분석의 괄호 속의 수치는 Wald χ^2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중회귀분석의 괄호 속의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냈다.

3) 로지스틱분석에서 R²값은 Max rescaled을 의미하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Adj R²값을 의미한다.

가설2인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4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ACBE변수는 모형1과 유사한 결과로 ADJ 및 ABSGAP변수 모두에서 음(-)의 관계로 1%, 5% 수준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BOUT변수도 모형2의 결과와 유사하게 ADJ변수와 10% 수준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ABSGAP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BOUT변수는 ABSGAP변수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지만, 가설의 방향인 음(-)으로 일치됨을 보여 지지되는 결과로 보여준다. 반면, BSPE변수는 ADJ나 ABSGAP변수의 경우에서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CON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방향성을 보이며 ADJ변수의 경우 CON변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변수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BIG4, LEV변수는 ADJ변수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InDelay, OWN, SIZE, ROA, CON, MKT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ABSGAP변수의 경우에는 InDelay, SIZE, MKT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4, ROA, CON변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고, LEV변수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잠정이익 수정여부와 수정 금액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 기업일수록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쳐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가설2가 지지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3. 추가분석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과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전체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전·후를 나누어 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와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관계가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도입 전인 2012~2013년과 도입 후인 2014년~2017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AFTER변수는 2014~2017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와 기업지배구조랑 상호작용변수인 CG*AFTER 변수를 모형2에 포함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변수와 연도 더미 및 상호작용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 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기업지배구조(CG)의 평균치를 차감한 Mean Center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변수 중 가장 높은 분산팽창지수가 4.15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AFTER 변수는 모든 분석에 1% 유의수준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이후가 도입 이전보다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관한 실증분석

VAR	로지스틱 ADJ (1=3,251, 0=3,932)			다중회귀분석 ABSGAP		
절편	4.61 (16.58) ^{***}	4.95 (19.31) ^{***}	5.54 (24.74) ^{***}	0.24 (2.08) ^{**}	0.27 (2.27) [*]	0.31 (2.71) ^{***}
AFTER	-0.35 (36.59) ^{***}	-0.35 (37.62) ^{***}	-0.35 (37.62) ^{***}	-0.05 (-7.75) ^{***}	-0.05 (-7.92) ^{***}	-0.05 (-7.86) ^{***}
CG : ACBE	-0.28 (5.17) ^{**}			-0.03 (-2.07) ^{**}		
ACBE*AFTER	-0.09 (0.39)			0.01 (0.34)		
CG : BOUT		-0.75 (5.01) ^{**}			-0.01 (-0.14)	
BOUT*AFTER		-0.03 (0.01)			-0.05 (-1.26)	
CG : BSPE			-0.14 (0.81)			-0.02 (-0.95)
BSPE*AFTER			-0.07 (0.13)			0.01 (0.31)
InDelay	-0.84 (77.59) ^{***}	-0.81 (72.50) ^{***}	-0.79 (70.56) ^{***}	-0.01 (-0.66)	-0.00 (-0.37)	-0.00 (-0.33)
BIG4	0.22 (15.85) ^{***}	0.20 (13.58) ^{***}	0.20 (13.09) ^{***}	0.01 (1.88) [*]	0.01 (1.69) [*]	0.01 (1.65) [*]
OWN	-1.12 (45.19) ^{***}	-1.12 (45.68) ^{***}	-1.10 (44.23) ^{***}	-0.11 (-5.78) ^{***}	-0.11 (-5.75) ^{***}	-0.11 (-5.72) ^{***}
SIZE	-0.08 (7.89) ^{***}	-0.09 (9.50) ^{***}	-0.12 (20.74) ^{***}	0.00 (0.50)	0.00 (0.07)	-0.00 (-0.54)
ROA	-1.48 (22.32) ^{***}	-1.50 (22.78) ^{***}	-1.42 (20.62) ^{***}	-0.20 (-5.59) ^{***}	-0.20 (-5.56) ^{***}	-0.19 (-5.46) ^{***}
LEV	1.42 (92.90) ^{***}	1.44 (96.13) ^{***}	1.43 (93.96) ^{***}	0.14 (8.56) ^{***}	0.14 (8.70) ^{***}	0.14 (8.63) ^{***}
CON	-0.47 (68.24) ^{***}	-0.46 (65.37) ^{***}	-0.46 (66.04) ^{***}	-0.08 (-12.01) ^{***}	-0.08 (-11.96) ^{***}	-0.08 (-11.93) ^{***}
MKT	-0.28 (20.06) ^{***}	-0.29 (21.14) ^{***}	-0.29 (22.08) ^{***}	-0.00 (-0.22)	-0.00 (-0.32)	-0.00 (-0.39)
IND	Included			Included		
YEAR	Included			Included		
F-값	461.20 ^{***}	456.15 ^{***}	447.85 ^{***}	30.09 ^{***}	29.82 ^{***}	29.61 ^{***}
R ²	0.0918	0.0905	0.0887	0.068	0.0674	0.0669
표본수	7,183					

- 1) 변수 정의는 모형 1과 모형 2를 참조.
- 2) ***(1%), **(5%), 및 *(10%) 유의수준을 나타내며, 로지스틱분석의 괄호 속의 수치는 Wald χ^2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중회귀분석의 괄호 속의 수치는 t통계량을 나타냈다.
- 3) 로지스틱분석에서 R^2 값은 Max rescaled을 의미하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Adj R^2 값을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 변수(CG)를 나타내는 ACBE, BOUT, BSPE변수는 <표 6> 제시한 가설2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가분석의 주요 관심변수인 (ACBE, BOUT, BSPE)*AFTER인 상호작용변수를 살펴보면, ADJ나 ABSGAP변수 모두에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은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후 연도의 흐름에 따라 잠정이익 수정정도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후의 전체기간을 표본기간으로 확대하여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여부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이익을 공시한 7,183개 기업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잠정이익 수정 여부와 잠정이익 수정 금액을 사용하였고, 기업지배구조 변수는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전문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정이익 수정정도의 평균을 사용하여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이전 및 초기 기간인 2013~2015년까지는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도입 정착기인 2016년 이후부터는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17년을 더미 변수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제도의 도입 정착기간인 2016~2017년이 도입 이전과 초기 기간인 2012~2015년보다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과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잠정이익 수정정도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화 제도의 도입 전·후 기간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잠정이익 수정정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잠정이익 수정정도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제출 의무화가 도입된 이전 및 초기 기간에서는 재무제표 대리 작성 행위만 근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 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2016년부터는 잠정이익 수정정도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이 원칙중심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실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화의 도입과 관계없이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향상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실효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로 잠정이익 수정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 후 감소함을 나타내어 동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규의 제도적 정비 및 회계실무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동률. 2009. “사외이사의 특성과 감사품질”. 국제회계연구 제25집 제1호 : 19-44.
- 김병호. 2006.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사회 구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이익의 상향과 하향 조정 유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32.
- 김우영. 2009. “잠정이익과 보고이익의 보수주의 및 감사효과”.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0권 제3호 : 69-103.
- 노준화·신유진. 2018. “감사인의 특성이 잠정이익 수정정도에 미치는 영향 : 외감법 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회계와 감사연구 제60권 제3호 : 85-122.
- 문상혁·이화진·박종국. 2006. “가결산이익의 과대공시와 사외이사의 특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4호 : 133-151.
- 박종일. 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 135-172.
- 박종일·전규안. 2017. “재무제표의 사전 제출 의무화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3권 제3호 : 1-40.
- 박종일·최종학·전규안. 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발표 논문집 : 391-429.
- 손성규·이은철. 2008. “경영자-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인 변경”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48호 : 205-227.
- 손성규·정기위·고재민. 2011. “이사회 독립성, 공시의 적정성, 그리고 시장 반응-손익구조 변경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 33-65.
- 송인만·박연희. 2006. “가결산공시 시기의 적절성과 정보유용성”.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51-181.
- 양준선·김기범. 2012. “가결산 공시 및 정정이 재량적발생액과 주가수익률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1권 제1호 : 111-138.
- 이문영·심호식·최종학. 20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이사회 특성과 공시 빈도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7권 제2호 : 279-320.
- 이상철·이경태. 2003. “감사위원회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8권 제3호 : 143-172.
- 이은철·박석진. 2016.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을 위한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된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1권 제1호 : 195-238.
- 이화진·문상혁. 2005. “기업지배구조가 보고이익의 질,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 51-82.

- 이효익 · 문상혁. 2004.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보고이익의 질과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 279-322.
- 장지인 · 전영순. 2003. “가결산결과의 사전공시 현황 및 공시기업의 특성과 주가반응의 선점효과”.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 80-107.
- 전영순 · 손준희. 2005. “가결산 순이익의 과대공시와 기업특성 및 시장의 사후 감시기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79-105.
- 전영순 · 손성규. 1999. “경영자 예측정보의 유형별, 공시경로별 편의성 및 정확성의 비교”. 회계학연구 제24권 제3호 : 25-52.
- 조은정 · 정주렴 · 김범준. 2016. “경영자 능력이 경영자-감사인간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 감사 전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 37-65.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y. 1996.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 :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3(1) : 1-36.
-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3) : 375-400.
- DeFond, M., and J. Jiambalvo. 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1) : 145-176.
- Karamanou, I., and N. Vafeas. 2005.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boards, audit committees, and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3(3) : 453-486.
- DeFond, M., and J. Jiambalvo. 1991. Incidence and Circumstance of Accounting Error. *The Accounting Review* 66(July) : 643-655.
- Xie, B., W. N. Davidson, and P. J. DaDlt. 2003. Earning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June) : 295-316.
- Weisbach, M. 1988. Outside Directors and CEO Turnove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 431-460.
- Menon, K., and J. Williams. 1994. The Use of Audit Committees for Monitor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3(2) : 121-139.

Firm's Accounting Competency after Mandatory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Jae Whan Park** · Jin Seok Kim***

— <Abstract> —

The Act on External Audit has been revised as submitting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SEC to prevent the self-review threats and root out the auditor's compilation services. The purpose is to enhance the internal accounting competence and eliminate the compilation services. The literature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the adjustment on preliminary earnings has increased after adopting the act. For the weak evidence, we assessed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mpetence including financial statement compilation on its own and empirically examined the corporate governance if it affects the firm's accounting competence.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it proved that the firm's accounting competence improved and the auditor's compilation services largely decreased from 2016. Second, the better corporate governance indicates the lower frequency of the preliminary earnings modification. These results are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act's effectiveness.

<Key words> Mandatory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irm's Accounting Competency, the Adjustment on Preliminary Earning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17 and is a revised version of a part of the Co-author's Master dissertation at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Ang University, jaypark1983@cau.ac.kr, First Author

*** Student in Master Program, College of Accounting department, Chung-Ang University, kjs7310@cau.ac.kr, Co-author